

예대마진 확대 은행 '이자놀이' 지적

순이익 11조 2000억원 전년대비 8조 7000억원 증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 확대는 자연스런 현상"

지난해 국내 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차 확대도 순이자마진(NIM)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은행들이 여전히 '이자놀이'로 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17년 국내은행 경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11조 2000억원으로 전년(2조5000억원) 대비 8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1년(14조4000억원) 이후 6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시중·지방·인터넷을 포함한 일반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8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씩 늘었다. 특수은행은 2조8000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은행들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은 지

난해 대손비용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이자리만 거둔 이익이 37조3000억원으로 전년(34조4000억원) 대비 2조 9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이자이익 증가는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NIM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대출금리(평균 3.23%)에서 예금금리(평균 1.20%)를 뺀 예대금리차는 2.03%로 2016년(1.95%)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채권 등 유가증권 이자까지 더한 NIM은 1.55%에서 1.63%로 0.08%포인트 개선됐다.

금리원은 은행의 예대금리차 확대를 금리 상승기에 통상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분석했다.

금리 상승기에는 장기 시장금리가 단기 시장금리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다. 만기가 긴 대출금리는 장기 시장금리 상승으로 빠르게 오르는 반면 만기가 짧은 예금금리는 단기 시장금리 적용으로 천천히 오르는 만큼 예대금리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로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를 확대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승원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후세적으로 보면 예대금리차의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은행들이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이 배이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익

이 나면 주주에게 환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은행의 자율"이라면서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 자본인 만큼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국내 은행의 총자산은 2363조5000억원으로 전년말(2268조 1000억원)보다 4.2%(95조4000억원) 늘었다.

원화대출 잔액은 1508조원으로 5.7% 증가했다. 기업대출(817조3000억원)이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660조4000억원)은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21%로 전년말(14.81%) 대비 0.40%포인트 상승했다. /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친환경농업직접직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일반 관행농법과의 생산비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내면 된다.

직불금 신청 후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인증내역, 농지현황 등이 변경됐다면 해당 인증기관이 교부한 변경 인증서를 제출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직불금은 5월 21일부터 약 6개월 간의 인증기관 이행 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 지급 예산은 총 264억원으로 1년 전(239억원)보다 25억원 늘었다.

/뉴스



전주, 군산, 익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체인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가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촉구

군산공장 정상가동 전제하에 한국GM 재정지원 이루어져야

전주, 군산, 익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체인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가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상협은 지난 28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결정 발표는 전라북도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상공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북은 가파르거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사남대 폐교 등 잇따른 악재에 시름을 앓고 있으며, 도민들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전라북도의 수출과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은 도민들의 생계는 물론 희망을 앗아가는 잔인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도민들은 지난 22년간 한국GM 군산공장을 향토기업이라 자부하며 어려울 때마다 'GM'이 팔아주기 범도민 운동'을 펼치는 등 물심양면으로 성원하며 함께 고통을 분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공장 폐쇄라는 것에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울분

을 토했다. 더불어 군산공장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는 군산뿐만이 아니라 익산과 김제, 전주, 완주, 정읍 등 여러 시군에 퍼져 있는 만큼 가파르거나 취약한 전북경제의 붕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반발했다.

전북상협 이선홍 회장은 "전라북도의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최근 정부의 대응책은 군산공장을 포기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서 "정부는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전북도민들의 울분과 서러움에 귀 기울여 총체적 위기에 빠진 전북경제를 위해 군산공장의 회생 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며, "한국GM의 국가재정지원은 반드시 군산공장 정상가동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한편, 지역 상공인들은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한국GM 군산공장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정치권,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공조하여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을원뱅크 '골드바' 간편 구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모바일 플랫폼으로 정보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모바일 플랫폼 '을원뱅크'를 통해 '골드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을원뱅크'는 NH농협은행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간편송금, 다치결제, 외화환전 등 간편 금융과 금융 상품권, Fun & Life 등 포털금융 서비스를 공인인증서와 보안매체가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앱)이다.

골드바 서비스는 순도 99.99%의 실물 형태의 금을 (취한국금거래소 쓰리엔과 (취산성금거래소를 대

해 농협은행이 판매한다. 판매 종류는 10g, 100g, 1kg, 10톤(37.5g), 50톤(187.5g), 100톤(375g)으로 총 6종으로 구성돼 있다.

구매한 골드바는 5명업일 이내로 지정된 농협은행 지점을 통해 수령이 가능하며, 구매한 골드바에 한해 재판매도 가능하다.

아울러 실시간 변동되는 골드바 가격조회 서비스와 함께 연도별 금 시세 추이, 금 투자 포인트 등을 안내하는 골드바 투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뉴스

GM 군산공장, 인력도급 업체 근로자 해고통지

한국지역(GM) 군산공장 인력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반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전북 군산시청을 방문한 한국지역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철)는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해고 통지로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한국지역 사내 업체에서 열심히 일만 했다. 회사의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상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란 이유로 묵묵히 참아냈다"고 전했다.

정규직원은 힘들어서 피하는 공정을 도맡아서 일하며 그들의 30~40%의 급여를 받았다. 그래도 묵묵히 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계유지와 연체가 이뤄질 정규직 전환의 희망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회사는 지난 28일 오후 5시 30분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3월31일자) 통지서 관련 문자 한 통만을 보내왔다.

정규직에는 희망퇴직 퇴직금, 위로금, 자녀학자금, 차량구입지원금 등이 지원되지만, 자신들에게는 어떠한 위로금도 생활지원금도 없이 나가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현철 위원장은 "군산공장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200여명의 인력도급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갈바다로 물리게 됐다"면서 "총 고용을 보강하라"고 주장했다. /뉴스

내일(2일)부터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기준이 2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우선 2016년 9월1일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치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이하에서 10%이하, 정밀검사는 15%이하에서 8%이하로 약 2배 강화된다. 매연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진행되며 엔진진자 매연장치에 전자진자장치를 연결해 매

연 여과장치와 관련한 부품(입력센서, 온도센서, 입자상물질센서 등)의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한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이날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도 260cc이상 대형이륜차에서 올 1월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이륜차(배기량이 50cc이상 260cc이하)로 확대되며 소음 검사도 받게 된다.

중소형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는 2021년으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소음기 제거, 경음기 불법부착여부 등 소음 관련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맨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양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수련회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인)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휘트